

이재명 “과반 돌파” ... 이낙연 “역전 발판” ‘명낙 1차대전’ 충청 표심 어디로

뉴스초점 - 민주당 대선 본경선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충청권에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 등 1차 지역별 순회경선에 돌입한다.

다음 달 4일과 5일 연속해서 치러지는 대전·충남과 세종·충북지역 경선 결과는 초반 판세를 결정짓는 등 전체적인 경선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각 예비 후보 진영에서는 관리당원과 대의원 표심 확보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 결과, 충청권 표심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예비 후보가 없어 정치권은 경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의 시선은 이재명 경기지사과 이낙연 전 대표의 득표율에 쏠리고 있다. 이 지사가 중원에서 ‘대세론’을 입증하느냐, 아니면 이 전 대표가 역전 드라마의 가능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경선 판의 흐름은 뒤바뀌게 된다. 정치권에선 세종·충남에서 이재명 지사가 우세한 분위기며 대전·충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조직력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는 충청권 표심이 이미 이 지사로 기울었다고 본다. 과반 득표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지사 캠프 핵심 관계자는 29일 광주 일보와 통화에서 “세종·충남에서는 상당한 우세하며 대전·충북에서는 경합이나 경합 우세 정도로 보고

대전·충남, 세종·충북 경선
다음달 4·5일 연속 치러
초반 판세·경선 흐름 큰 영향
누가 3위 할까도 관전 포인트

있다”며 “충청권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잘하면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전 대표의 조직력에 대해서도 “관리당원에 지역위원장이나 단세장들의 ‘오더’가 통하지 않은지 이미 오래됐으며 결국 예비 후보의 본선 경쟁력 등 전국적 지지를 추이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충청 대전’에서 이 지사가 승리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대세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 진영에서는 충청지역 경선을 통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치적 이해도가 높은 대의원, 관리당원 투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극적인 승리도 기대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진영 핵심 관계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관리당원 투표는 성격이 다르다”며 “충청권 대의원·관리당원의 높은 정치의식이 발휘되면서 충청권 투표 결과는 역동적 경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설혹 이 지사에게 밀린다고 해도 큰 차이는 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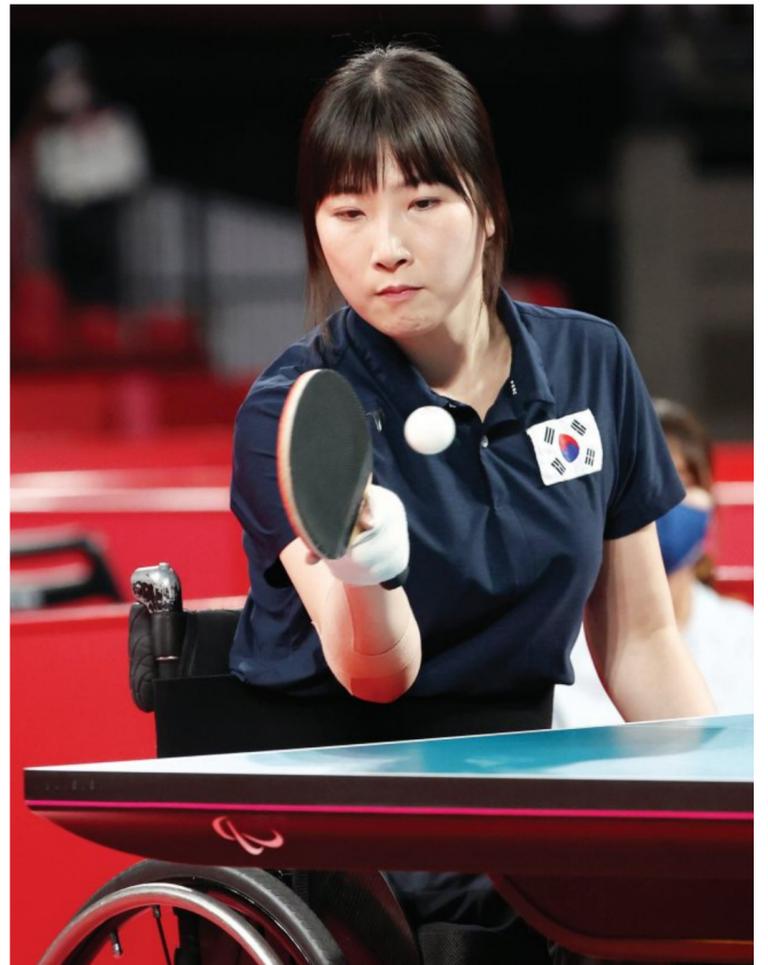
을 것이며 오히려 역전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 전 대표를 돕는 현역 의원 30여명이 충청권을 구역별로 나눠 표심을 다지고 있어 극적인 승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누가 3위를 차지하느냐와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보이느냐도 관전 포인트다. 현재 3위 자리를 놓고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장관, 박용진·김두관 의원이 치열한 경쟁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 전 총리와 김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 격리로 지역 표심 공략에 차질을 빚고 있다. 3위 후보의 득표율도 관심사다. 3위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율을 보인다면 1위 후보의 과반 득표가 어려워져 결선 투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 이후, 경쟁력을 잃은 일부 예비후보들의 경선 포기과 함께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지역 경선을 앞두고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전체적인 경선 구도는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지역 경선 결과는 1차 선거인단 투표 등 초반 판세를 결정짓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역민들도 이 지사가 과반 득표율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전 대표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서수연이 지난 28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2020 패럴림픽 탁구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 류징의 공을 받아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속도 낸다

조성안 광주시 도시계획위 통과 ... 분양가1870만원으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조성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중앙공원 1지구 비공인 시설 규모 변경 안전 심의’를 벌여 원안 통과했다. 위원회는 비공인시설 면적을 기존 18만9360㎡

(7.78%)에서 19만5456.97㎡(8.03%)로 변경하고, 건폐율은 26.07%에서 29.92%로 3.85%포인트, 용적률은 199.8%에서 214.07%로 14.27%포인트 상향했다.

광주시는 “2020년 6월 1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이후 1년 2개월여 동안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조정협의회를 5차례 개최하고,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분양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고, 분양가는 실시계획인가에서 제시한 1938만원보다 68만원 인하한 1870만원으로 결정하도록 했

다. 선분양 대비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건설비용이 대폭 높아지는 후분양을 선택하면서도, 분양가를 오히려 낮췄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조정력이 돋보였다는 평가 등이 나온다. 시는 또 사업자측과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논란이 됐던 80평형대 분양과 45평형 임대세대 공급계획을 철회하고, 85㎡ 이하 국민주택 분양 371세대 및 임대 408세대를 공급하도록 조정했다. 이 밖에도 사업자의 자구 노력을 유도해 아파트 건설비 단가를 당초 실시계획 인가 시보다 65만원(3.3%)을 인하하도록 했다.

사업자측도 걸림돌이 해소됨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공원 조성과 아파트 시공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광주시는 향후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전체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현재 중앙공원 1·2지구 등 광주 민간공원 9곳에서 1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청 탁구 선수단 눈부신 선전

패럴림픽, 서수연 은메달 획득
동메달 2개...김영건 오늘 결승

광주시청 소속 탁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메달레이스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대한민국 탁구 대표팀 19명 가운데 6명이 광주시청 소속으로, 이들 가운데 3명이 지난 28일 현재 대한민국 선수단에 메달 3개를 안겼다. <관련 기사 19면>

여자 탁구 단식(스�포츠등급 2)에서 서수연(이하 광주시청)이 은메달, 남자 탁구 단식에서 박진철(스�포츠등급 2)과 남기원(스�포츠등급 1)이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영건은 30일 열리는 남자 탁구 단식(스�포츠등급 4) 결승전에 진출, 최소

은메달을 확보했다.

금메달 유망주였던 서수연은 지난 28일 류징(중국)과 결승에서 재격돌했으나, 1-3(7-11, 8-11, 11-4 8-11)으로 패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서수연은 2016 리우 패럴림픽 여자 탁구 결승에서 류징에 1-3으로 졌다.

박진철은 같은 날 남자 탁구 단식(스�포츠 등급 2) 4강에서 라파우 추페르(폴란드)와 겨뤘 1-3(2-11 11-4 8-11 9-11)으로 패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남기원은 남자 탁구 단식(스�포츠 등급 1) 4강에서 주영대(경남장애인체육회)에게 1-3(6-11, 3-11, 8-11)으로 패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력한 우승후보 김영건은 30일 오후 4시 45분 압둘라 외즈튀르크(터키)와 금메달을 다툰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9월10일 OPEN

확실히 확실히!

첨단 연제 비즈파크 남다른 투자가치와 미래형 첨단 업무시설,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과 다양한 세제혜택!
10만여 배후수요를 가진 고품격 프리미엄 오피스!

✓ 분양가 9,900만원의 프리미엄 오피스

✓ 실투자금 1,000만원이면 나도 건물주

✓ 다양한 세제혜택 (재산세, 취득세 감면)

✓ 주택수 미포함 (대출 최대 90%까지)!!

첨단 연제 **비즈파크** 지식산업센터
Knowledge Industry Center in Yeonje

1661-4470

분양홍보관: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서평동 1213번지)
우체국보험회관 1층

※ 상기 이미지는 소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연제동 104번지 ■ 대지면적: 6,604㎡ ■ 건물 규모: 지하2층, 지상 15층 / 14동 ■ 주용도: 지식산업센터, 제2종일반 ■ 연면적: 32,342.2㎡ ■ 건물용: 52,000㎡(약 80%) ■ 용적률: 346.8%(제한 350%) ■ 주차대수: 2,200대(제한 1,200대)
 ※ 본 홍보물에 실은 전, CG 이미지는 소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업의 법적 구속력, 오공인용 용도 변경은 전 제정사항으로 사후에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용도에 따른 제정사항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